

‘칩칩산중’ KIA



‘FA’ 양현중



‘입대’ 안치홍



‘수술’ 나지완

꼴찌는 면했지만 앞날이 더 험난한 ‘호랑이 군단’이다.

지난 12일 한화가 롯데에게 2-4로 패하면서 남은 시즌 경기 결과에 없이 KIA는 8위 자리를 지키게 됐다. 막바지까지 계속됐던 ‘꼴찌 싸움’에서 한숨을 돌리려는 듯이 내년 시즌 전망도 밝지는 않다.

구단의 행보에 따라 2015시즌은 타이거즈의 긴 압축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왕조 부활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장기적인 리빌딩이 진행될 예정이다. 차근차근 KIA 스타일로 선수들을 만들어가고 팀컬러를 찾겠다는 것이 구단의 생각이다.

KIA가 챔피언스 필드 개관과 함께 뒤늦게 본격적인 육성 시스템 가동에 들어간 반면, 내부 육성을 강조하며 일찍부터 시스템을 준비하고 운영한 다른 팀들이 서서히 그 성과를 보이면서 ‘선수중’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다. 뒤늦은 출발, 차분하게 육성 시스템을 다지는 게 KIA에게는 우선 과제가 됐다.

성적 내기에 급급하면 외부 수혈에 치중했던 단기적인 안목의 운영방식도 순효보다는 역효과를 내면서 내부에서 ‘장기적인 육성’을 통한 리빌딩 목소리가 높다.

이런 분위기 속 선수들의 공백이 겹치면서 리빌딩은 KIA에게는 속셈 같은 속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에이스 윤석민이 해외진출을 하며 팀을 떠난 가운데 올 시즌 에이스 역할을 담당했던 양현중의 거취가 유동적이다. 양현중은 올 시즌이 끝나면 포스팅 자격을 얻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다. 2~3개 팀이 양현중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키를 쥐고 있는 구단도 사실상 포스팅을

허락한 상태다.

구단은 포스팅을 통해 희비가 엇갈린 윤석민(볼티모어)과 류현진(LA다저스)의 케이스와 강정호(넥센)·김광현(SK)의 해외진출 분위기 등을 감안해 양현중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내야의 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격수 자리를 책임졌던 김선빈이 먼저 군입대를 확정된 가운데 군입대 시점을 고민해왔던 2루수 안치홍도 리빌딩 분위기 속 국방의 의무를 먼저 마칠 것이라는 계획이다. 2008년 입단 이후 쉽지가 않았던 만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뒤 출가분한 마음으로 팀의 중심 선수로 부흥기를 이끌고 싶다는 것이 안치홍의 생각이다.

FA·입대 이어 나지완 등 수술 앞뒀겨울 훈련 차질...리빌딩 체제 불가피

수술을 앞둔 선수도 있다. 4번 나지완이 조만간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내년 시즌 준비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겨울 정상적인 훈련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혹사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많은 이닝을 소화했던 2015 우선지명 선수인 이민우(경상대)도 팔꿈치 수술을 받는다. 기대주 이민우의 프로 데뷔 시점도 1년 늦어지게 됐다.

안팎의 상황으로 리빌딩 체제로 돌입해야 하는 KIA가 최근의 실패를 교훈 삼아 ‘야구 명가’ 부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특·특·특

‘뜨거운 방망이’ 이대형 “비법은 대구서 맞은 새뽕”

▲“훈련 하나 치더니 스윙이 달라졌네.” 타격 훈련 시간 코칭 스태프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 선수가 있었다. 12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2008년 10월2일 이후 2201일 만에 홈런을 날린 이성우가 그 주인공이었다. 이성우에게는 생애 두 번째 홈런. 코칭스태프는 “훈련 하나 치더니 스윙이 달라졌다”고 웃었고 이성우는 “이제 시즌 시작하는 거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었다. ▲“로또를 사려고 했어요.” KIA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타자는 이대형이다.

다. 지난 9월12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3안타로 신호탄을 쏟아내며 12일 현재 14경기 연속 안타 행진. 그냥 안타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3안타 경기가 3차례, 멀티히트가 8차례 달할 정도로 뜨거운 타격이다. 이대형은 “이상하게 대구 원정에서 새뽕에 맞은 뒤로 경기가 잘 풀린다. 스트레칭을 하다가 살다가 처음으로 새뽕을 맞았다. 그때 로또라도 살까 생각을 하다가 말았는데 안타가 계속되고 있다”고 웃었다. ▲“그래봤자 패전투수입니다.”

12일 삼성전에서 선발 등판 한 한승혁이 인터뷰 요청에 패전투수라 할 말이 없다며 농담으로. 한승혁은 4.2이닝 4피안타 3탈삼진 3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되기는 했지만 한층 좋아진 제구와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바탕으로 한 파워 피칭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승혁은 “키킹 동작을 하나 바꿨는데 훨씬 여유가 생겼다. 팔 회전이 큰데 키를 길게 잡으면서 팔을 올리는 시간을 벌었다. 작은 변화지만 여유가 생기면서 타석이 눈에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여울기자 wool@

신동열 감독

KIA-기아차, 야구 유망주들에 장학금



KIA 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가 저소득층 야구 유망주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KIA와 기아자동차는 13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넥센전에 앞서 ‘제 3회 타이거즈 러브펀드 데이’를 갖고, ‘타이거즈 러브펀드’를 통해 적립한 기금 중 일부인 7400만원을 7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수여했다.

KIA는 지난해에도 95명의 학생에게 4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동성중 이호선이 이날 경기의 시구자로 나섰다. 시타는 러브펀드 우수 참여 직원인 최환주 기사가 맡았다.

KIA 선수단은 특별 제작한 ‘러브펀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했으며 경기에서 앞서 꿈나무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한편 ‘타이거즈 러브펀드’는 KIA 선수들의 경기 기록에 따라 선수 본인은 물론, 구단 프런트, 기아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부금을 매월 적립하는 프

로그래밍으로, 시즌 종료 후 적립된 기부금은 한국 야구 발전과 소외계층 아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4월부터 9월까지 총 3억 645만2000원이 적립됐다. 프로그램 시행 첫 해인 2010년 선수 11명과 기아차 임직원 2900여명이 참여해 총 9300만원을 적립한 것에 비하면 4배가 증가한 금액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두번째 ‘우승의 문’ 열다

배상문, PGA 개막전서 17개월 만에 트로피

배상문(28·캘러웨이)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두 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2014-2015 시즌을 힘차게 열어젖혔다.

배상문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니파의 실버라도 컨트리클럽(파72·7203야드)에서 열린 2014-2015 시즌 개막전 프라이스닷컴 오픈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후반 샷 난조로 고전하며 버디 3개와 보기 4개로 1오버파 73타를 적어냈다.

하지만, 고비마다 파 세이브에 성공,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쳐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2012년 PGA 투어에 진출한 배상문은 지난해 5월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 우승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상금 108만 달러(약 11억6000만원)를 받았다.

배상문은 또 내년 4월에 열리는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출전권도 확보했다.

13언더파 275타를 친 스티븐 보디치(호주)가 배상문보다 2타 뒤진 2위에 올랐다.

배상문은 이번 우승으로, 8승의 최경주(44·SK텔레콤), 2승의 양용은(42)에 이어 세 번째로 PGA 투어에서 2승 이상을 올린 한국 선수로 기록됐다.

또 이날 우승으로 세계 랭킹 90위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세계 랭킹 195위에서 105계단이나 상승했다. 지난해 5월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 이후 개인 통산 2승째를 거둔 배상문은 2011년 11월에 세계 랭킹 26위까지 오른 경력이 있다.

배상문은 “후반에는 긴장이 돼서 어렵게 플레이를 했지만 이번 우승으로 더욱 자신감을 갖고 시즌을 치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24)는 3언더파 285타를 쳐 공동 46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